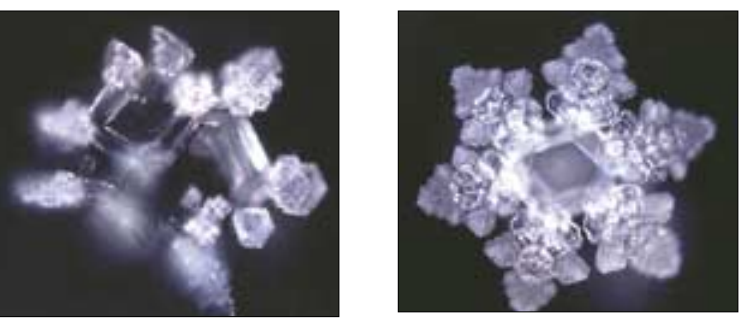


# 물에도 감정이 흐른다

**‘물의 메시지’**  
 에모토 마사루 지음 / 양익관 옮김  
 나무심는 사람 / 1만5천원



◇원적사 사찰뒤편 골짜기(사진 위)와 그곳을 흐르는 물의 결정(사진 아래). ◇원적사 경내(사진 위)와 경내를 통과한 물의 결정(사진 아래).

〈물의 메시지〉는 얼마 전 출간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1·2〉로 큰 관심을 모았던 에모토 마사루가 최근 펴낸 세계 최초의 물결정 사진집이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물의 얼음’은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무심코 내뿜는 말에도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반응한다.

‘사랑한다’는 글자를 보여준 물에서는 아름다운 결정 사진을 얻을 수 있었으나, ‘바보 멍청이’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에서는 흉측하고 불쾌한 결정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글씨에는 물의 결정이 심하게 일그러졌지만 선한 마음이 담긴 기도문에는 아름다운 결정으로 화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슴 저미는 노래를 트니 물은 신기하게도 슬픈 표정으로 반응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실험을 통해 물에도 인간과 같은 감정이 흐르며 ‘마음’이 있다고 주장한다.

재일교포 2세 부인을 둔 ‘국제평화운동가’이기도 한 저자는 이번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그동안 외국에서 출간된 책들과는 달리 한국 관련 물결정을 추가로 수록하는 열성을 보였다.

경기도 인천시의 원적사가 바로 대표적이다. 원적사에는 사찰 뒷산에서 발원한 계곡물이 경내로 흘러들어와 대웅전 옆을 지나간다.

**가슴 저미는 노래 들려주면 슬픈 표정 반응**  
**자연수가 사찰 경내 흐를 땐 육각수로 변해**

한 신도가 경내로 흘러들기 직전의 물과 경내로 흘러들어온 물을 떠서 에모토 박사의 연구실로 보내 결정 사진 촬영을 부탁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사찰로 흘러들기 전의 계곡물이 평범한 자연수와 비슷한 결정을 보여준 데 반해, 경내로 흘러들어온 물은 선명한 육각형 결정을 이룬 것이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또한 국립국악원이 연주한 ‘영산회상’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단아하고 영롱한 빛을 발했다. 에모토 박사가 복한에 들렀을 때 떠온 평양의 고려호텔 수돗물 결정 사진은 도교나 런던보다는 맑은 결정을 보여 주었다.

이 책에는 약수·샘물·청정수 등 때묻지 않은 자연의 물에서부터 오염된 강물과 대도시의 수돗물에 이르기까지 120여종의 물결정 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저자의 부인이 한국인인 까닭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아름다운 말과 긍정적인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진리를 눈으로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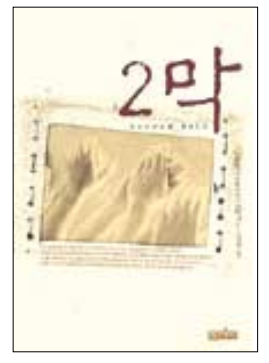
前 세계 헤비급 챔피언 조지 포먼, 前 미국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 영화배우 마이클 J. 폭스, 애플 컴퓨터의 CEO 스티브 잡스, 미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각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달리는 명사라는 점 외에도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탄탄대로만 골라 달렸을 것 같은 이들도 실은 실패의 낭떠러지 밑으로 몇 번씩 미끄러진 뒤에야 오늘날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점이다.

이 책 〈2막〉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안내서다. 2막이란 늘 꿈꿔왔지만 어떤 이유든 이루지 못했던 삶을 뜻한다. 세월흐름에서 귀농인이 되는 것이든 평범한 주부에서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든 새로운 삶을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2막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막은 가슴속에서

펼쳐왔던 꿈을 펼치는 무대이며, 인생의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다. 이 책은 인생의 2막을 올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저자들은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단 하나일 리 없다. 인생이란 한번뿐이지 기회가 한 번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꿈 길러내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솔직

**‘2막’**  
 스테판M. 폴란 · 마트 레빈 지음  
 조영희 옮김  
 창작과비평사 /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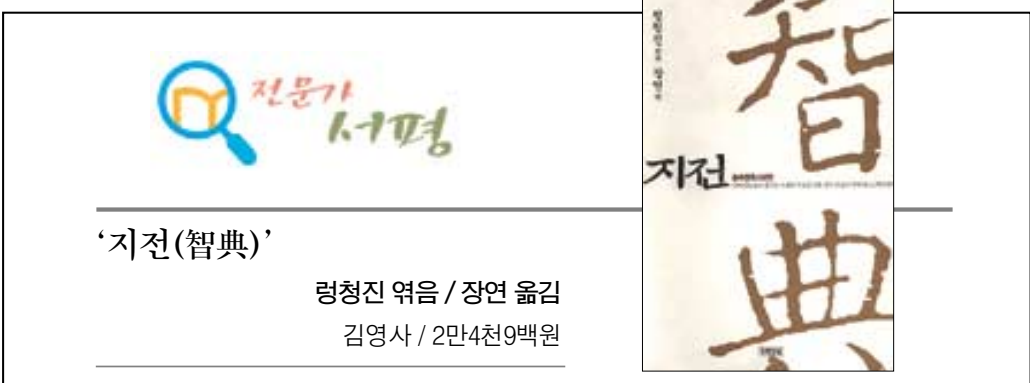


**‘마음자세’ ‘내면의 욕망 찾아내기’ 등 실패의 두려움 극복 방법 상세 소개**

‘마음자세’ ‘내면의 욕망 찾아내기’ 등 실패의 두려움 극복 방법 상세 소개

하라’ 등 2막을 위한 9가지 마음자세와 ‘내면의 욕망 찾아내기’ 등 5가지 연습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지전(智典)’**  
 링청진 엮음 / 장연 옮김  
 김영사 / 2만4천9백원

**지혜로운 삶 제시 ... 읽는 재미도 ‘쏠쏠’**

역대 중국의 인물들을 재평가함으로써 인재의 변별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던 〈변경〉의 저자 링청진이 쓴 743쪽 분량의 책이다. 얼핏보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 냄새가 난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난세영웅들의 빛나는 지혜와 지략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사기><춘추><한비자><손자병법><논어> 등과 같은 위대한 고전에서 뽑아낸 핵심적인 내용들로 100여편의 이야기기를 엮었다.

인재대응의 모범이 된 맹상군, 적은 자본으로 왕조를 사들인 대상인 여불위, 정치와 역사를 좌지우지한 전국시대 책사의 1인자 장의와 소진 등, 역사속 위대한 인물들의 뛰어난 지혜와 지략이 쉽고 재미있게 소개돼 있다. 명인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기인이나 은자(隱者)들의 이야기도 들어 있어 한층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특히 모든 이야기의 앞에 서문을 두어 독자들이 중국 고전의 지혜와 책략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공하는 조직은 영웅 한 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의 집합으로 잘 관리돼 있는데 있다. 다만 조직을 관리하는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음미할 때만이 비로소 나에게 다가 온다. 즉 인재와 역사적 교훈을 오직 진심으로 행동에 옮길 때만이 비로소 지혜를 활용해 자신의 인격을 높이며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결코 작지 않은 책의 두께와 무게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흥미있게 책장이 넘겨지는 이유는 바로 인재와 지혜가 가져다 주는 인생의 가치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간에 모든 직업과 계층을 아우르는 책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 면에서 〈지전〉의 출간은 반갑게 다가왔다. 여기에는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신봉한 지략과 지혜가 담겨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지혜를 익히는 방법 가운데 역사속 실제 인물들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크게 가슴속을 파고 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또한 책장을 한

**난세영웅들의 지모·지략 史記 등서 뽑아 소개**

도록 하였다. 그리고 풍부한 사진자료들과 찾아보기 쉽게 만들어진 사전식 설명의 인명사전, 이야기결말인 고사성어 사전은 재미와 함께 학습효과까지 더해준다. 이 책은 총 4권에 걸쳐 앞으로 출간될 ‘지전총서’의 첫번째 시리즈 ‘춘추전국시대편’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한 고조 유방의 일화가 특히 의미있게 다가온다. 한고조 유방은 이렇게 말했다. “장막 안에 앉아 천리 밖의 승리를 거두는 면에서 나는 장강(張良)보다 못하고, 나라와 백성을 안정시키고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면에서 나는 소하(蕭何)를 따르지 못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면에서 나는 한신(韓信)에 미치지 못한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천하의 영웅호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밑천이다.”

순자(荀子) 또한 이렇게 말한다. “제왕이 활을 쏘아서 백발백중하고 싶다면 자신이 직접 손을 댈 것이 아니라 궁수를 등용하면 되고, 천하를 잘 다스리려면 재능과 덕을 겸비한 인재들을 등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힘의 소모를 줄이면서 대업을 이룰 수 있다.”

장한장 넘기면서 어느새 새로운 눈이 트이고, 현명 한 지혜가 마음속에 찌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자칫 책략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책이 전하는 것은 모사와 입기응변이 아니라 안목과 균형감각이다. 다른 시대, 다른 인물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며 엮어가는 역사의 파노라마를 읽다보면 위기 극복의 지름길은 시대와 인간에 대한 통찰 밖에 없다는 걸 배우게 된다. 에피소드별로 단락 구분이 명확하고 저자의 친절한 해설이 도와준다.

성공을 꿈꾸는 경영자나 직장인, 실패 앞의 지혜를 터득하고자 하는 학생, 멋진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주부 등 모두가 재미있고 편하게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책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국내외 안팎으로 어수선한 시기에는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전〉은 이 난국의 실태를 풀 수 있는 수천 년 전의 위대한 지혜를 한자리에 모은 책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성공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고 한 권쯤 소장해야 할 책이 아닐까 싶다.

■김영열 / 상지대 경영학부 교수

〈지전〉은 〈사기〉 〈춘추〉 〈한비자〉 〈손자병법〉 〈회남자〉 〈문자〉 〈주서〉 등 단고의 고전 중에서 난세 영웅들의 지혜와 지모만을 모은 책이다.

김주일 기자

1974년 대원대학교 개교  
 1975년 제1회 졸업식  
 1975년 제1회 입학식  
 1975년 제1회 입학식  
 1975년 제1회 입학식

대원 정경호 이사 (1989 - 1975)

1990년 불교방송 개국 설립  
 1990년 불교방송 개국 설립

**2년 제야간강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나큰 원력을 일으킵니다" 미래불교 지도자를 양성을 위한 열린 교육도량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정법불교 대중불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본교 합격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 혜택을 드립니다.

**1 모집과정**  
 • 대학원과정 15명 대학과정 50명 통신과정 00명

**2 전형일정**  
 • 원서교부 2003년 11월 17일 - 12월 29일  
 • 원서접수 2003년 12월 1일 - 12월 29일  
 • 합격자 발표 2004년 1월 14일(개별통보)  
 • 대학원 면접 2004년 1월 10일(토) 14:00 본교 강의실  
 • 대학(통신)과정은 서류전형임.

**3 대학(통신)과정 특징**  
 • 성적 우수자는 본교 대학원 과정 입학 자격 부여  
 • 철저한 학사 관리로 효율적인 학습 효과 및 면학 분위기 조성

**4 대학원과정 특전**  
 • 개인지도교수제(Tutorial System)의 철저한 논문 지도  
 • 년 1회 해외불교학술답사 실시(지도교수 인솔)  
 • 졸업 후 미래학불교학회 회원으로 연구 및 강의 활동 참여  
 • 소정의 수련과정 이수 후 법사 자격 부여

※ 교과 과정 등 자세한 안내는 입학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입학원서 배부처 본교 교학과, 경서원, 불서보급사, 불교방송 3층 불교문화센터, 책방 여시이문

**대원불교대학** www.buddhaschool.or.kr www.idaewon.or.kr  
 Tel 02)754-1613, 773-9171 Fax 02)771-6796

**최고의 교수진**  
 - 장위옥 (일본 국립동경대학교) - 허경구 (인도라나시 한두대학교)  
 - 김사업 (일본 국립교토대학교) - 김중옥 (서울대학교)  
 - 최봉수 (동국대학교)